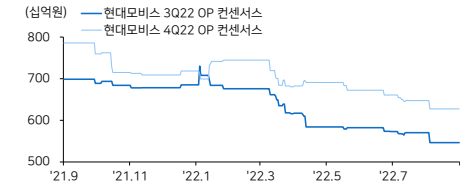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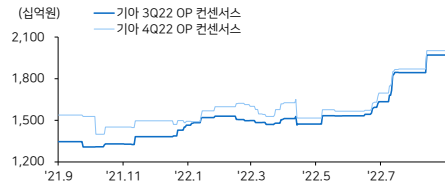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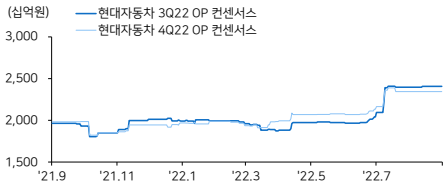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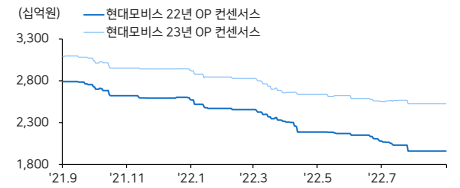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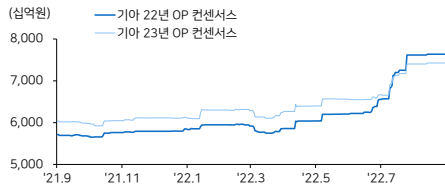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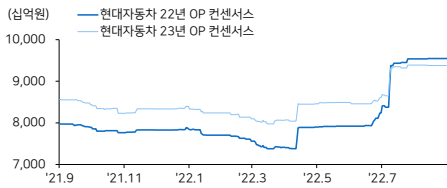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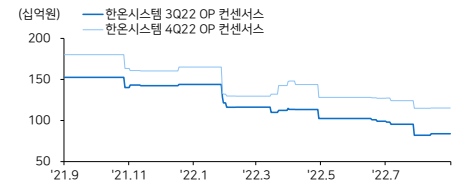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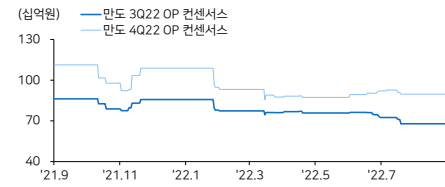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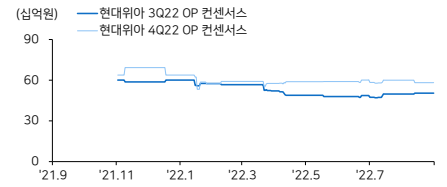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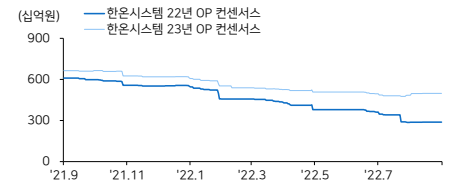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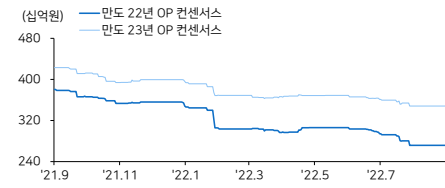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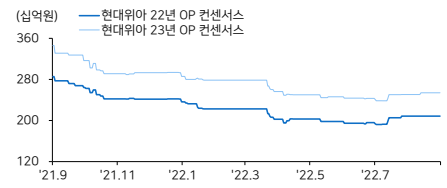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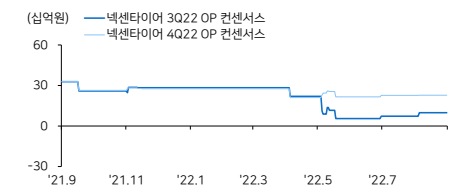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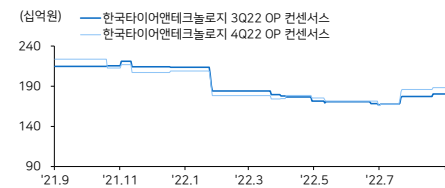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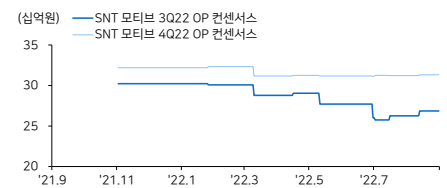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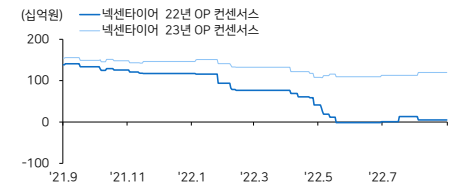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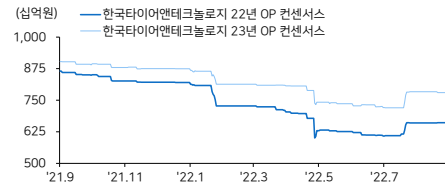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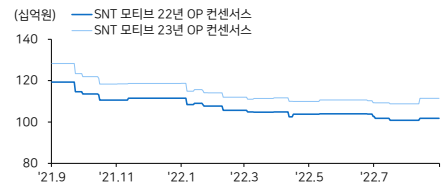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기아차, 미서 6% 가격 상승... '가치투자·원유상승 등 원인' (뉴시스)

기아차가 미국에서 타 경쟁브랜드와 달리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브랜드로 탈바꿈 중이라고 CNN이 보도. 기아는 최근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평균 6%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, 혼다, 랜드로버의 4% 대비 높은 상승폭.

<https://bit.ly/3UNwVso>

자동차산업 향후 5년간 '95조원+' 투자...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 (뉴시스1)

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에 '95조원+'의 민간 투자를 집중지원하고,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대 생산,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% 달성을 골자로 하는 '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'을 제시.

<https://bit.ly/3fuiqJ0>

U.S. new vehicle sales to increase on strong demand (Reuters)

JD Power-LMC Automotive는 9월 미국 신차 판매가 yoy +5.4% 증가한 95.9만대로 예상. 그러나 동시에 거시 경제 여건이 수요와 부담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차가격과 수익성이 다음 분기 악화될 가능성도 언급.

<https://reut.rs/3frwZhg>

Tata Motors launches \$10,000 electric car (electrek)

인도 완성차 업체 TATA Motors는 10,000달러대의 소형 해치백 BEV를 출시, 현재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배송 예정. 배터리는 19.2kwh, 24kwh 용량으로 제공되며 주행거리는 250~315km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.

<https://bit.ly/3CeXyiy>

'레벨4 자율주행' 현대차 로보셔를, 판교 제로시티 달린다 (조선비즈)

현대차는 오는 29일부터 레벨4 자율주행과 인공지능(AI)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를 서비스로 판교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. 판교테크노3사거리 기준 반경 약 540m, 판교 제로시티에서 정류장 호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.

<https://bit.ly/3rdAZ7y>

고환율·저성장 '직격탄'... 車 부품업체 '전기차 부품 비중 높여야 산다' (BizFACT)

자동차 부품사들이 생산이 줄면서 실적은 감소한 반면,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등이 오르면서 고점비를 늘려 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. 전기차용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,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.

<https://bit.ly/3Rg6993>

Tesla adds Airbnb co-founder Joe Gebbia to board (CNBC)

테슬라는 지난 8월 오라클 공동설립자 '래리 엘리슨'의 이사회 사임에 이어 에어비앤비의 공동설립자 '조 게비아'를 이사회에 새로운 멤버로 추가. 조 게비아는 지난 7월 에어비앤비에서 퇴임하여 자문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음.

<https://cnb.cx/3DYXbk7>

BYD presale pricing for its EV lineup in Europe will start below 40,000 euros (electrek)

BYD는 유럽에 출시할 HAN, TANG, ATTO3 등 모델 3개를 공개. 가장 저렴한 모델인 ATTO3은 38,000유로에서 시작, 나머지 모델은 72,000유로에서 시작. 저렴한 C세그먼트 SUV EV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<https://bit.ly/35mYl6G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